



기획재정부

#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9. 27.(화) 09:00	배포 일시	2022. 9. 27.(화) 08:00
담당 부서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위정 (044-215-5310)
		담당자	사무관 박수진 ( tka5rn@korea.kr )

## 아·태재정협력체(PEMNA) 10주년 연차총회 개최

- 우리나라 재정준칙·재정비전 2050 등 재정개혁방안 공유 -

- 기획재정부는 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22년 아·태재정협력체(PEMNA\*) 연차총회를 9.27(화)~29(목) 동안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한다.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지역 14개국 재무부간 재정정책 공유, 우호증진을 위해 기재부, WB 주도로 '12년 출범한 협력체

- 동 행사는 PEMNA 출범 10주년을 기념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주제 하에 아·태지역 11개 회원국 및 WB·EU 등이 각 국 재정 개혁 동향 및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 < PEMNA 10주년 연차총회 >

- ◇ (주최) 기획재정부, 세계은행(WB) / (주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일시 및 장소) '22.9.27(화) ~ 29(목) / 서울 포시즌스호텔(대면 + 영상)
- ◇ (참여 회원국) 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라오스, 몽골,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 11개국

\* 주요 참석 인사: 기재부 2차관, 주한 EU 대사,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주한 필리핀 대사 등

-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예산분과) ❶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응효과, ❷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❸고물가 시대 예산정책
  - (국고회계분과) ❶경제위기 시 국고 위기관리 전략, ❷재정당국의 재정 위험관리 역할, ❸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

□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건전재정기조로의 전환, 재정제도 개혁 추진계획 등을 소개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회원국 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공유 및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크게 확대되고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각 국 모두 재정 지출을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 또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 ❶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 준칙 법제화, ❷'23년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 수준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 ❸민간투자 활성화 및 유휴 국유재산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❹향후 우리나라 중장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비전 2050」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발표하였다.

□ 이어서, 마누엘라 V. 페로(Manuela V. Ferro) WB 아태지역 부총재\*는 환영사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19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한국이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코로나19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하였다.

○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 및 재정여력 보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타당하며,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정준칙 또한 적절히 설계된다면,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 (원문) With the economic recovery now underway showing is that the government is right to now turn to strengthening fiscal soundness and rebuild those buffers, and this includes promoting fiscal rules which, if they are calibrated appropriately, can enhance transparency but also predictability.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한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인구 구조변화 및 기후 관련 문제에 직면해, 연금 및 기타 고령화 관련 지출 증가, 2050 탄소중립 전략 추진 등을 위해 재정마련이 필요하며,

- 한국의 재정 관리 전략이 국가의 장기 목표와 일치할 수 있도록 「재정 비전 2050」이 이러한 정책 목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원문) To ensure that Korea's fiscal management strategy is aligned with the country's long-term goals, 'Fiscal Vision 2050' should incorporate and reflect these policy objectives.

□ 동 행사에서는 3일 동안 예산분과와 국고회계분과 공동세션 및 각 분과별로 3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 공동세션에서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인 기획재정부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PEMNA는 지난 10년 간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회원국 간의 정책자문사업, 연구방문사업을 진행하는 등 활발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 향후 ①프로젝트 기반 사업 개발, ②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회원국 확대, ③여타 국제 협력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PEMNA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을 밝혔다.

○ 이후, 분과별 세션에서는 WB 소속 국제전문가와 회원국이 세션 주제에 대한 세계적 동향 및 각국의 경험을 발표하고 논의한다.

- 예산분과 세션에서는 ①코로나19 경기부양책 대응효과, ②중기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③고물가 기간 예산정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 국고회계분과 세션에서는 ①경제위기 시 국고 위기관리 전략, ②재정당국의 재정 위험관리 역할, ③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특히,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회원국과 WB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중기 재정계획과 재정건전성의 연계\* 및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대응 재정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향후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23년 정부 예산안 및 '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내용 발표 예정

\*\* 국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민간주도 경제 선순환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 예정

□ 오늘 컨퍼런스 발표 자료를 포함한 자료집은 PEMNA 공식 홈페이지 ([www.pemna.org](http://www.pemn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차관 최상대입니다.

2022년 PEMNA(팜나) 연차총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마누엘라 페로(Manuela Ferro) WB 부총재님,  
마리아 까스띠요 페르난데스(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 대사님,  
마리아 테레사 비. 디존-데베가(Maria Theresa B. Dizon-De Vega)  
주한 필리핀 대사님,  
다툽 림 주에이 진(Datuk Lim Juay Jin)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님,  
PEMNA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 출범한 PEMNA는 아태지역 각국의  
다양한 재정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재정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입니다.

'1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연차총회를 개최한 후  
10주년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하다가('20~'21년) 3년 만에 대면으로 서울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직접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 2 건전재정의 필요성

이번 연차총회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이며, 이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국 정부가 백신·방역조치 등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에 따라 최근 코로나 확산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지난 3년 간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어 재정운영상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는 각 국 모두 재정지출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 고물가인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IMF도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재정지원 확대보다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선별지원할 것을 권고하는 등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기조를 경계한 바 있습니다<sup>1)</sup>.

한국의 경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의 확장재정의 결과, 재정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약 100조원 수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고착화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평균  $\triangle 5\%$ 대<sup>2)</sup>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관리재정수지 적자  $\triangle 3.6\%$ 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3년 동안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증가하여  
금년 국가채무는 1,070조원에 육박하고,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약 12%p 증가하여  
50%에 근접할 전망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약 2%p 증가한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전례 없이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sup>3)</sup>.

1) IMF, World Economic Outlook('22.7월): "인플레이션 대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약계층 보호  
를 위한 일시적인 선별지원 등 추진. 전반적인 긴축적 거시정책기조하에서 통화정책을 보완  
하기 위해 재정정책 변화는 신뢰가능한 중기재정운용계획 범위내 최소한 예산중립적일 필요"

2) 관리재정수지(조원 GDP대비) : ('20)  $\triangle 112.0$ ,  $\triangle 5.8\%$  ('21)  $\triangle 90.6$ ,  $\triangle 4.4\%$  ('22)  $\triangle 110.8$ ,  $\triangle 5.1\%$

최근 들어 Fitch 등 국제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sup>4)</sup>하는 등  
대외적인 평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의 여파로 발생할  
향후 구조적 지출 소요를 감안하였을 때,  
현재 재정기조 유지 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3**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혁신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향후 한국경제 재도약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전재정기조 확립, 재정제도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전재정기조 확립을 위해  
단순하지만 엄격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수지준칙 기준을 토대로 하되  
국가채무비율을 보완적으로 활용한 재정준칙을 마련할 것입니다.

---

3)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 ('07) 299.2, 27.5% → ('09) 359.6, 29.8%  
('19) 723.2, 37.6% → ('22추) 1068.8, 49.7%

4) Fitch('22.1월): "재정적자 확대 등 기존 재정기조 유지시 중기 신용등급에 악영향 우려"  
Moody's('21.5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국가채무가 한국의 재정규율 이력을 시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수지한도를 △2%로 축소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당장 내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에 부합하도록 편성하였으며,  
중기적으로는 '27년 국가채무비율 50%대 증반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둘째, 전례 없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재정성과관리체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하여 확보한 재원으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쓸 것입니다.

또한, 재정사업 평가를 내실화하여  
성과미흡 사업은 예산의 일정비율을 삭감하거나  
제도개선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성과평가의 환류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정부담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기존 도로·철도 중심에서  
산업·생활·노후인프라 등으로 다양화하는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SOC 분야에서의 재정투자 여력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5년 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수요가 있는 민간에 공급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70년 장기재정전망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 시제에서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적 중장기 재정전략인  
「재정비전 2050」을 수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50년 우리나라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  
바람직한 미래 재정의 모습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들의 실행방안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 **4** 마무리 말씀

내외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고물가 등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재정의 역할은 더욱 중요시 될 것입니다.

재정당국은 재정이 필요한 역할은 수행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경험과 사례가 소개되고 논의되어,  
회원국 여러분의 재정개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PEMNA는 아·태지역의 대표적 재정 네트워크로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건전성을 위한 개별 국가 차원의 경험 등을 논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PEMNA 1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환영사를 마칩니다.  
정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 2

## 아·태 재정협력체(PEMNA\*) 개요

\* 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 (설립목적)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 협력이 부상하며 재정 분야 차원에서 협력 강화 추진('12년 출범)

○ 회원국 간 재정운영 경험 및 우수사례 공유, 우호증진 목적

□ (구성 및 조직) 아·태지역 14개 국가\* 및 2개 기관\*\*으로 구성, 운영위 및 산하 2개 분과(예산, 국고), 사무국(조세연) 조직 운영

○ (의장)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 및 WB Practice Manager

구성	참여국 및 참여기관
회원국 (14개국)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 * 미얀마는 WB 및 EU의 미얀마 정권과의 관계 단절로 임시제외
당연직 회원기관	세계은행(World Bank), 조세재정연구원
준회원 (옵서버)	러시아 재무부 국고청(Federal Treasury of Russia), 미국 재무부 (US Treasury Office of Technical Assistance)

□ (성과) 재정개혁 경험 발표\*, 회원국 한국 현장방문 행사\*\*를 통해 국내 재정관련 제도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전파 기반 구축

\* 성과주의예산제도, 발생주의 회계제도, 자산관리계좌 운영 등 한국 총 68회 발표

\*\* 성과주의예산(캄보디아外 4개국, '16년), 발생주의 회계(중국外 4개국, '16년)

○ '12년 출범이후 총회급 회의 11회, 분과회의 30회 개최하여 회원국 실무·고위급 인사 간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

○ PEMNA 2기('20년~)부터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 및 연구활동 (Research Activity) 운영 등을 통해 회의 외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의 재정개혁 경험을 개도국에 전수

## 2022년 PEMNA 연차총회 일정

## 1일차 (9/27): 공동세션 및 분과별 세션

시간	주제 및 세부내용	
오프닝 세션 (09:00 - 09:45)	환영사 1: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환영사 2: Manuela Ferro WB 부총재 (영상) 환영사 3: Maria Castillo Fernandez 주한 EU대사	
09:45 - 10:05	단체사진촬영 & 커피브레이크	
공동세션 (10:05 - 12:00)	1. 기조연설: 배지철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 김민형 재정건전성과 사무관 2. 국제전문가 발표: Ergys Islamaj WB 선임이코노미스트 (영상), Lucia Piana EU 집행위원회 경제금융국장 (영상)  * 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건전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12:00 - 13:30	오찬	
분과별 세션 1 (13:30 - 18:30)	예산분과	국고회계분과
	주제 1: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의 효과 (캄보디아,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라오스)	주제 1: 경제위기 시 국고채의 위기 관리 전략 (WB, 몽골, 인니,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18:30 - 20:30	만찬	

## 2일차 (9/28): 분과별 세션

시간	주제 및 세부내용	
	예산분과	국고회계분과
<b>분과별 세션 2</b> (09:00 - 12:00)	<b>주제 2: 중기재정지출계획과 재정 건전성의 연계</b> (WB, 인니, 한국*) *한국 발표자: 조세연 박노옥 박사	<b>주제 2: 재정당국의 재정위험관리 역할</b> (WB, 필리핀, 베트남)
12:00 - 13:30	오찬	오찬
<b>분과별 세션 3</b> (13:30 - 17:30)	<b>주제 3: 고물가 시대 예산정책</b> (WB, 튀르키예, 태국, 몽골)	<b>주제 3: 국유재산 관리 개선을 통한 국가자산 가치 확대</b> (WB, 한국*, 필리핀) *한국 발표자: 국유재산조정과 전찬익 사무관
17:30 - 18:30	리더십팀 회의	리더십팀 회의
19:00 - 21:00	만찬	

### 3일차 (9/29): Wrap-up 세션

시간	주제 및 세부내용
09:00 - 11:00	운영위원회 회의
11:00 - 12:00	Wrap-up 세션
12:00 - 13:30	오찬